

<컴패션 뉴스레터 1969년 11-12월호>

“성탄을 축하합니다!”는 한국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뜻합니다.

한국 보육원의 크리스마스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기독교 메시지는 세계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122호 칠드런즈 채리티 보육원(Children's Charity Home)의 최봉남(Choi Bong Nam) 원장님이 지난 크리스마스의 멋진 추억을 사진으로 전해왔습니다.

(사진)

1.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우리 보육원 꼭대기의 야경: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2.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식한 우리 보육원 예배당에서 목동이 밝은 별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3. 유치원 어린이들이 영광스러운 왕을 찬양합니다.
4. 어린이들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공연합니다.
5.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박 대통령이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항상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트립으로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캔자스(Kansas)주 게일즈버그(Galesburg)에 사는 15세의 한 소녀는 한국 고아를 후원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개인지도를 시작했습니다. 1967년, 켄 트라우트(Jan Trout)는 당시 5세였던 김순휘(Kim Soon Hui)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하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켄은 순휘의 편지 읽는 것을 좋아했고, 곧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무척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들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대학에도 진학하기를 원했고, 대학 교육을 받으려면 4년 동안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에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트립은 그저 꿈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켄은 기도하며 언젠가는 순휘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 있게 대학에 등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연 1,300 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동안 모은 돈을 한국으로의 "꿈의 여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켄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마태복음 19:26) 그러자 켄의 어머니도 한국 여행에 동행하여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12일, 순휘와 201명의 고아 친구들은 광주 인근의 13호 보육원인 마운트 오브 글로리 앤 호프 보육원(Mount of Glory and Hope Orphanage)에서 켄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왔지만 얼굴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켄은 보육원에서 한국식 저녁 식사를 하고 순휘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202명의 고아 각자에게 줄 장난감을 가져왔고, 순휘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도우며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대학 생활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켄의 꿈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고아들을 가르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젊은 세대" 후원자 중 한 명인 켄,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한국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당신에게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 위: 켄 트라우트(Jan Trout)와 순휘(Soon Hui), 그리고 13호 보육원의 "환영 인사"
- 왼쪽 아래: 한국식 저녁 식사에 함께한 손님들
- 오른쪽 아래: 202 명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성경 교사들을 위해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컴패션 보육원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 헌신하는 성실하고 유

능한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를 배우고 많은 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경 교사들은 어린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청소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경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절하고 너그러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교사는 후원자들과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후원금은 남자의 경우 월 30달러, 여자의 경우 월 20달러입니다.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아래 양식을 오려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p>수신: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p> <p>() 네, 저는 성경 교사를 후원함으로써 영적인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 여자 성경 교사, () 남자 성경 교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제1순위 선택은 # _____ 이며, 2순위 선택은 _____, 3순위 선택은 _____ 입니다. () 가능한 성경 교사를 저에게 배정해 주십시오.</p> <p>성경 교사를 위한 _____개월 간의 후원금으로 _____달러를 동봉합니다.</p> <p>이름: _____ (남성, 여성, 미혼 여성)</p> <p>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컴패션 파일 번호(이전 영수증에 기재된 번호): _____</p>

한국의 고아들이 새 놀이기구들 덕분에 행복해졌습니다.

다음은 1969년 9월 11일, 피트 맥가비(Pete McGarvey) 씨가 1블렌하임 뉴스 트리뷴(Blenheim News Tribune)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채텀(Chattam)에 있는

¹블렌하임 뉴스 트리뷴(Blenheim News Tribune):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 블렌하임(Blenheim) 시의 지역 신문
(<https://wegrowfortheworld.com/agriculture-resources/ag-related-media-contacts-in-chatham-kent/blenheim-news->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컴패션의 모든 직원과 해외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크리스마스
와 새해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미리암 스완슨 부대표

기독교 취업의 기회

컴패션 시카고 사무소에서는 편지 작성 능력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타자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원서를 요청하시거나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신 경우 인터뷰 예약을 위
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전
화: 312-456-6116)**

컴패션을 돕는 방법

여러분은 친구 네 명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보내 주셔서 저희가 그들에게 컴패션 사역에 대해 소
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편지로 여러분이 후원자이며 그들을 추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게도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네 명 이상의 친구의 이름을 알려 주시면, 한국 서울에 있는 우리 영진직업학교 여학생들이 만든
1970년 실크 달력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양식을 오려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수신: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저는 다음 친구들을 컴패션에 추천합니다: 1.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2.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3.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4.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 저에게 1970년 실크 달력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추천인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3귀한 후원자의 사랑스러운 편지

کمپیشن 대표실 담당자 귀하,

만약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 단체가 없었다면, 저는 지난 6년간 156호 재남 보육원(Jae Nam Orphanage)에 있는 어린 고아, 39번 고영옥(Koh Yung Ok) 어린이와 편지를 통해 이렇게 사랑스럽고 복된 관계를 맺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저는 제주도 서귀포의 한 보육원에 있는 저의 딸아이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진우(Jin Woo Lee) 원장님 부부가 이타적으로 보육원을 섬기는 모습에 감동하여, 이 두 분이 진정 높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은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어린이들은 예의 바르고

³귀한 후원자의 사랑스러운 편지: 역주) کمپیشن نیوسلیر 1970년 3-4월호 <재남 크리스천 보육원> 관련 기사 참고.

사랑이 넘쳤으며, 주변 환경은 기독교 신앙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가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부부는 뽀뽀한 일정 가운데 저와 영옥이 서귀포의 숲길을 산책할 때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의 방문을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젊은 한국 선생님이 우리의 통역을 도왔습니다(그는 재남 보육원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내내 주님께 우리 딸과 다른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가정과 원장님 부부와 같은 친절한 사람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보육원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원장님 부부와 직원들은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마당과 놀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었으며, 저의 딸이 이렇게 좋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한 후원자를 통해 그분들의 헌신이 컴패션 사무실에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이해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이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나눔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바버라 밀로세비치(Barbara Milosevich)

(사진)

- 위: 바버라 밀로세비치(Barbara Milosevich) 후원자와 영옥(Yung Ok) 어린이
- 아래: 156 호 재남 보육원(Jae Nam Orphanage)

비전트립에 참가한 후원자들은 기뻐했습니다: 4차 비전트립을 안내합니다.

1969년, 비전트립에 참가한 분들이 감동받았던 순간을 계속해서 편지로 알려주시며 회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 행복한 후원자가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비전트립을 가능하게 하려고 애쓰신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영광스러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단 24일 안에 그토록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나의 사랑스러운 한국 어린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Monrovia), 올가 오옌(Olga Oen)

비전트립에 참가한 64명의 참가자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모였으며, 모든 연령을 망라했습니다. 부부도 있었고, 친구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트립이 시작되자, 모두가 하나의 행복한 컴패션 가족이었습니다.

(사진)

서울 공항에서 트윌라 슈나이더(Twyla Schneider)와 후원어린이

4드라마 같은 이야기: 발레리 데이턴(Valerie Dayton) 후원자

대부분의 후원자들에게 가장 큰 설렘은 자신의 고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발레리 데이턴(Valrie Dayton) 후원자는 매우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후원하는 소년을 방문했고, 그다음에는 그 소년과 함께 꽤 멀리 떨어진 다른 보육원에 있는 또 다른 후원어린이인 한 소녀를 방문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이 후원자와 함께 방문한 고아 소년을 소개할 때, 그 보육원에 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과 6년 동안 헤어져 있던 자신의 남동생임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남매는 현재 같은 보육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컴패션 비전트립에 참가하셔서 후원하는 한국 어린이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1970년 비전트립에는 약 1,000달러에 일본의 1970년 엑스포 관람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970년 비전트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인도와 인도네시아 비전트립도 앞으로 계획 중입니다.

<p>로버트 포사이스 비전트립 팀장 4차 비전트립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p> <p>저는 1970년 4월 7일~28일에 진행되는 제4차 컴패션 비전트립 관련 정보를 받고 싶습니다.</p> <p>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p>
--

4드라마 같은 이야기: 역주) 컴패션 뉴스레터 1970년 5-6월호 <한국으로의 모험> 관련 기사 참고.